

# 사상 체질 분류를 위한 눈, 코, 입의 형태학적 관계 분석

조동욱, 강철수, 김태선, 이경은, 조강호

충북과학대학

ducho@ctech.ac.kr ily01@daum.net ktset@naver.com kyongeunmail@yahoo.co.kr kangho1626@naver.com

## Morphologic Relation Analysis of Eyes, Nose and Mouth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Cho dong Uk Kang Chul Su Kim Tae Sun Lee Kyung Eun Cho Kang Ho

Chungbuk Provincial Univ. of Science & Technology

### 요약

우리나라의 한의학 이론은 의학적으로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우리나라의 대표 의학이지만 세계 의료시장에서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상의학은 종래의 견해에 비하여 사람을 4 가지의 체질로 나누고 체질별로 처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독특한 의학이다. 그러나, 4가지의 체질을 감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물론 체질 분류가 객관적으로 정확성을 보인다면 이는 현대인들의 최종 목표인 건강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사상인의 형태학적 판단법 중 용모사기론에 입각하여 눈, 코, 입에 대한 형태학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쉽게 체질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홈 네트워크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서론

현대인들은 몸이 불편할 때 병원을 찾으며 대다수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서양의학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독창적이며 훌륭한 의학이 한의학이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표적인 학문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명성만큼이나 우리나라의 한의학 이론은 매우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의학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대에 크나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양의학의 장점인 객관적이며 정확한 기준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의학은 그간 이론적 제안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임상현장에서 오직 임상 의의 직관에 의해서만 행해졌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진단 결과를 볼 수 없는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1]과 같은 한의학적 이론과 IT 공학 기술을 연계한 융합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상의학의 체질감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용모사기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사람들의 노출이 가장 많은 안면부의 사상인별 눈, 코, 입의 형태학적 특징을 분석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체질 감별을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각 사상인을 선출하고, 안면부 사진을 촬영하여 사상인별 형태학적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2. 사상의학

조선말엽에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태동되어 1894년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선생에 의하여 창안된 사상의학(四象醫學)[2]은 종래의 견해에 비하여 현실적인 측면에서 독특한 '사상구조론'을 바탕으로 태양인(太陽人), 소양인(少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3]의 네 가지 체질을 설정하고 각 체질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변증,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이론이다.

##### 2.1 사상 체질 분류법

사상 체질의 분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체형기상론(體型氣像論)이 있는데 사상의학에서는 신체부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폐(肺)가 속한 상초, 비(脾)가 속한 중상초, 간(肝)이 속한 중하초, 신이 속한 하초로 구분한다. 회노애락의 개인적 편차에 의하여 장부의 대소가 생기고 이는 장부의 기능적 차이뿐만 아니라 외형으로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변별의 지표가 되며 외형에 대한 정적관찰 방법론이라 한다[4].

둘째로 용모사기론(容貌詞氣論)이 있다. 체형기상론이 외형에 대한 정적 관찰이라면 용모사기론은 그에 대한 동적 관찰이라 할 수 있다. 얼굴 모습과 말하는 기운을 동시에 포괄하는 이론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골격, 생김새, 행동거지는 각 사상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판단